

# ‘강속구’ 이태규·‘강심장’ 유지성 미래를 향해 간절함으로 던진다

KIA 제주도 마무리 캠프 - 1군 무대 꿈꾸는 2000년생 예비역들



이태규

**산악 특수부대 출신 우완 이태규**  
산 타면서 자연스럽게 체력훈련  
스피드·힘 늘며 구속 150km 넘어  
**복귀 후 첫 캠프 참가 좌완 유지성**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는 각오  
열심히 기량 올려 새 시즌 대비

이태규는 정동진에 있는 산악 특수부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력훈련을 했다. 야구를 잠시 놓아두고 몸을 회복하는 시간도 됐다.

그는 “산도 많이 타고, 레펠도 많이 했다. 많이 아파서 재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자연 회복하면서 병역을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팔꿈치가 안 좋았는데 무리해서 안 던지는 법을 배우고 있다. 복귀하고 운동하면서 스피드가 올라갔다. 선 것도 도움이 된 것 같고, 힘이 좋아진 것 같다. 하체를 더 써서 던지면서 스피드와 힘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KIA가 새로 시도한 아카데미에 참가했던 만큼 각오가 남다르다.

이태규는 “야구는 단체 운동, 팀 운동인데 열의로 따로 훈련을 했었다. 우리가 못하면 그런 아카데미가 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운드에서 파이팅 있게 던지는 투수다. 타자에게 안 지는 스타일이다. 타자 맞히는 걸 별로 안 무서워해서 뭉뚱 쥐구 던지는 걸 좋아한다. 공격적인 유형이다”며 “체인지업 연습하고 있다. 체인지업 잘 만들어서 직구와 함께 써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지성도 일찍 복무를 끝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야구 출발선에 섰다.

2020년 천안 복고고를 졸업하고 2차 4라운드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그는 지난 6월 예비역 신분이었다. 양주에서 복무한 그는 예비군 동원 관련 업무를 맡았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개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유지성은 “군대를 빨리 다녀와서 나중에 군 문



유지성

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없을 것 같다”며 “복귀하고 첫 캠프인데 이제 나이도 23살이고 자리하는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는 마음이다”며 “그동안 훈련보다 가장 힘들었는데 서로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김종국 감독을 필두로 1군 코칭스태프와 함께한 시간이었던 만큼 각오는 더 남달랐다.

그는 “1군 코치님과 훈련도 처음이고 내장점 더 부각시켜서 이런 선수라는 각인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었”다며 “마운드에서 기죽지 않고 승부하는 강심장이다. 타자를 압도하기 보다는 기술적으로 범타 처리하고, 경기 운영 능력에서 잘할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체인지업, 커브가 자신 있다. 열심히 기량을 올려서 시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00년생 ‘예비역’들이 1군 무대를 꿈꾸며 제주도 캠프를 달렸다.

제주도에서 진행된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캠프에는 군대에서 야구에 대한 간절함을 더한 예비역들이 있다. 2000년 2월생 우완 이태규와 2000년 11월생 좌완 유지성이 그 주인공.

수원 장안고 출신의 이태규는 2019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3라운드 지명을 받은 유망주다. 지명 당시 KIA는 ‘구속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고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올 시즌 결과를 얻었다.

5월 전역한 이태규는 손승락 코디네이터(현 2군 감독)가 이끈 육성 아카데미에 참가해 구속과 어울리기에 주력했다. 시즌 막판에는 퓨처스리그 두 경기에 나서 152~153km를 찍었다.

“아직도 키가 크고 있다”며 웃은 188cm의 장신 이태규는 빠른 스피드와 강심장으로 1군 무대를 두드리고 있다.

## 양의지, 4+2년 152억원에 두산 복귀

### FA 역대 최고액

‘현역 최고 포수’ 양의지(35)가 ‘4+2년 최대 152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고 4년 만에 두산 베어스로 돌아왔다.

프로야구 두산은 22일 “양의지와 4+2년 최대 152억원에 계약했다. 계약조건은 첫 4년 계약금 44억원에 연봉 총액 66억원이다. 2026시즌 종료 후 인센티브 포함 2년 최대 42억 원의 선수 옵션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양의지는 2018년 12월 11일 NC 다이노스와 4년 125억원에 계약했다.

자유계약선수(FA) 계약으로는 2017년 이대호가 롯데와 계약할 때 기록한 150억원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FA 계약이었다.

4년이 흘러 양의지는 다시 FA 자격을 얻었고,

이번에는 역대 4번째 FA-비 FA 통합 4번째 ‘150억원대 계약’을 끌어냈다.

‘총액 규모’만 보면 152억원으로 올해 김광현이 미국 메이저리그 생활을 접고 돌아오며 SSG 랜더스와 맺은 4년 151억원(비FA)을 1억 넘어선 ‘최고액 계약’이다.

KBO리그에서 탄생한 ‘총액 규모’ 150억원 이상인 계약은 올해 김광현의 4년 151억원, 지난해 12월 나성범이 KIA 타이거즈와 맺은 6년 150억원(FA), 2017년 이대호의 FA 계약에 이은 네 번째다.

KBO리그 FA 계약으로 시야를 좁히면 양의지는 역대 1위 기록도 세운다.

FA 계약만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선수는 LG 트윈스 외야수 김현수였다. 김현수는 2017년 미국에서 돌아온 뒤 LG와 4년 115억원에 계약했



양의지(오른쪽)가 22일 FA 계약을 한 뒤 전종 대표이사와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지난해 12월 다시 LG가 내민 4+2년 최대 115억원의 계약서에 사인했다. /연합뉴스

## “도민이 행복한 스포츠 환경 만들겠다”

윤보선 전남체육회 부회장, 전남체육회장 출마 선언

윤보선(63·사진) 전남체육회 부회장은 22일 “전남도민과 체육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환경조성에 앞장서 전남체육의 100년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이날 전남체육회관 1층 대강당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 정통성을 지키고 체육인의 자존심을 높여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 삶의 행복, 함께하는 전남체육, 건강한 전남도민” 슬로건을 내세워 ‘삶의 행복 확대’, ‘스포츠 경쟁력 강화’, ‘스포츠 복지서비스 강화’ 등 3대 전남체육 목표를 제시하고 체육인이 행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스포츠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문화향유를 위해 생활체육 지원 강화 등 9개 전략을 제시하고 어르신과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 확대 등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사1종목 후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타시도 유출방지를 위한 초·중·고·대 연계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북권에 체육영재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량을 통한 지역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체육 살림살이가 넉넉해야만 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국·도·비 등 예산 증액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년 전남체전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체육인 한사람, 한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27년간 오직 전남체육 한길을 걸어온 체육인이자 기업을 건설하게 경영해온 기업인으로서 폭넓은 인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남체육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남체육의 정통성을 지키고, 체육인의 자존심을 높여 소통과 화합의 전남체육 중흥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강진 출신인 윤 부회장은 전남체육회 이사, 전남스키협회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 자랑스런 전남인상(체육부문), 2015년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수상했다. 현재 주식회사 유림대표이사, 광주지검 광주전남범죄피해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9회 아시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가 오는 24일 인천에서 막을 올린다. 우리나라는 6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아시아선수권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 /연합뉴스

## 아시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24일 개막 광주도시공사 4인방 6회 연속 우승 이끈다

### 강경민·원선필·송혜수·서아루 출격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선수 4명이 아시아 여자핸드볼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제19회 아시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가 24일 인천에서 막을 올린다.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이란,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홍콩, 태국 등 10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4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한다.

상위 5개국이 2023년 11월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공동 개최하는 제26회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한다.

1987년 창설돼 격년제로 열리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과 2004년, 2010년을 제외한 15

번의 우승을 독식했다.

2012년부터 5연패를 달성, 이번 대회에서는 6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김 라스무센(덴마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호주, 인도, 우즈베키스탄, 이란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B조에서는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홍콩, 태국이 경쟁한다.

대표팀은 10일 말부터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했고, 22일 인천으로 이동해 대회 개막을 준비한다.

이번 대회에는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류은희(형기리 교리)를 비롯해 이미경(부산시설공단) 등이 뺄렸다. 광주도시공사 소속 강경민(센터백), 원선필(피봇), 송혜수·서아루(레프트윙) 등 4명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데시벨
- 2관 올빼미
- 3관 동감, 아마겟돈 타임
- 4관 올빼미, 데시벨
- 5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동감
- 6관 올빼미, 데시벨
- 9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심야카페: 마상 허니
- 7관 씨네커플 동감, 인생은 아름다워
- 8관 씨네커플 스트레이지 월드, 아마겟돈 타임, 자백,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덕임학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오페라단 2022 송년음악회  
금년새와 함께하는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I>  
일시: 2022. 12. 3.(토) 17:00  
2022. 12. 4.(일) 17:00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062-412-2507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I  
**피노키오**  
일시: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613-8246